‘국산 골프채 브랜드’ 고집 30년… “한류 들뜨게 해”



리더에게 聽 하다

양정무 랭스필드 회장(62)

대담=김주일 국장, 글 · 사진=박재완 기자

‘30주년’, 한 사람의 삶에서 30년이라는 시간은 간단치 않은 ‘일’이다. 더욱이 그 시간을 오로지 하나의 일을 위해 썼다면 그 30년은 지나온 것이 아니라 쌓아온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역사인 것이다. 지나간 것이 아닌, 쌓인 것의 가치는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에 있을 것이다. 사라지지 않고 쌓여 있는 시간. 그렇게 하나의 삶이 ‘삶’을 넘어 ‘역사’가 된 시간을 들여다보려고 한다. 30년 전, ‘국산 골프채’라는 명사를 만들어내기 위해 미답의 길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그 길을 걷고 있는 ㈜와이랭스필드의 창업주 양정무 회장의 30년을 들여다본다.

어느 날 찾아온 목표, ‘국산 골프채’

“제가 미국서 잠깐 공부할 때 골프를 처음 하게 됐는데, 그땐 젊을 때고 골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제대로 된 골프채 하나 없이 골프를 했어요. 한국으로 돌아와 회사생활을 할 때였는데, 제대로 된 골프채를 하나 마련하려고 유명 백화점에 가서 국산 골프채를 찾았는데 국산 골프채가 없더라고요.”

양 회장이 모 일간지 광고부에서 영업업무를 하고 있을 때였다. 국산 골프채는 없다는 매장 직원의 어이없다는 듯한 퉁명스러운 대답을 듣는 순간 양 회장은 많은 생각이 들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골프가 지금처럼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였다. 골프는 ‘사치’처럼 느껴질 때였다. 골프가 대중화되지 않은 시기였고 골프시장의 변방이었음을 감안하면 그렇게 이상할 일도 아니었지만 양 회장은 국산 골프채가 없다는 사실에 생각 한 구석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자존심이 상했다. 평소 ‘우리’, ‘우리 것’에 대한 소신이 남달랐던 양 회장에게 국산 골프채가 없다는 사실과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대적 상황이 못마땅했다. 그렇게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양 회장은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을 그는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다. 애꿎은 매장 직원과 실랑이를 하고 나온 양 회장은 그때부터 마음속에 ‘국산 골프채’를 화두로 품었다.

미다스의 손

양 회장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삼십대 초반의 젊은 시절에 당시 광고영업 분야에서 하루하루 신화를 쓰고 있었다.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한 매출의 수치를 매일매일 갈아치우고 있었다. ‘최연소 차장, 과장, 부장 … ’, 어느 날부턴가 양 회장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다. 당연히 수식어가 그냥 생긴 것은 아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영업에 임했다. 그리고 늘 남다른 생각으로 살았다.

“광고영업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회사와 다양한 일들을 접할 수 있었어요. 많이 볼 수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출판’이 보였어요. 아, 저거 ‘사업’ 되겠다싶었어요. 그래서 그날로 거래처 지인의 도움을 받아 작게 출판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업은 대성공이었죠.”

‘영업’이라는 특수성이 양 회장의 안목을 넓혔고, 타고난 영업적 마인드와 사업가적인 DNA에 그 안목이 더해졌다. 광고영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그는 사업가로서의 눈을 뜨기 시작한다. 양 회장은 신문사 광고영업 업무와 사업을 병행하며 자신이 처음 시작한 사업을 하루하루 키워나갔다. 양 회장이 사업에 남다르게 매진한 이유는, ‘국산 골프채’였다. 양 회장 사업의 최종 목표는 ‘국산 골프채’였다. 국산 골프채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었다. 양 회장은 출판을 시작으로 다양하게 사업의 영역을 넓혀나갔다. 승승장구였다. 손을 대는 사업마다 ‘대박’이었다.

국산 골프채, 랭스필드

“일본 골프채의 헤드(우드)를 우리나라에서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렴한 값으로 헤드부분을 우리나라에서 OEM으로 제작해 자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다시 우리나라에 비싼 값으로 팔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골프채를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무도 그런 사실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고민하지도 않았어요.”

1992년 드디어 ‘국산 골프채’가 명사화된다. 국산 골프채 브랜드 ‘랭스필드’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다. 양 회장은 그동안의 사업으로 자금을 모아 법인 ‘성해무역’을 세우고 브랜드 ‘랭스필드’를 세상에 선보인다. 같은 시기에 유사한 브랜드들이 같은 시도를 했지만 앞서나간 것은 랭스필드였다. 양 회장은 몸담았던 신문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전념한다.

양 회장은 국산 골프채 ‘랭스필드’ 1호 매장을 서울 인사동에 열었다. 인사동은 우리 문화의 색깔을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상징적인 장소인 것이다.

C2면에 계속

INSIDE

C3 인터뷰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주한인도대사
C4 인터뷰 리투아니아에 한국불교 알리는 원보 스님
C5 인터뷰 장 줄리앙 푸스 다큐멘터리 감독
C6 인터뷰 한스욕 에플레 한마음선원 독일지원 신도회장
C7 인터뷰 마우리찌오 리오또 안양대 교수